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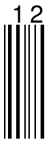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

ISSN 2383-5524



9 772383 55200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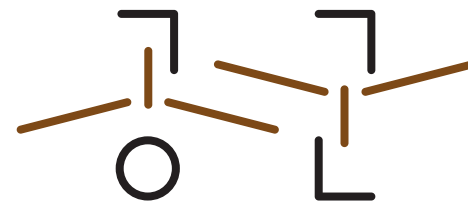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8 12

MONTHLY MAGAZINE 2018+12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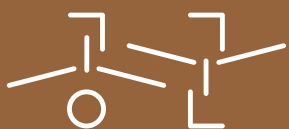
<http://afzine.co.kr>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8
12
4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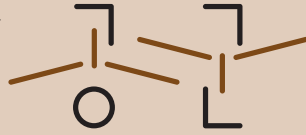
COVER STORY

돌아보다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정신 없이 바쁘셨나요? 즐거운 일들이 많았나요? 혹시 힘든 한 해였나요? 어떤 한 해였든 좋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할 때입니다. 행복한 한 해였다면 내년에도 행복이 계속되도록, 어려운 한 해였다면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찬찬히 돌아봅시다. 이번 호에는 사진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05	화풍지설	판옥선의 노꾼들
06	기획특집 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다
14	기획특집 ②	나의 마음을 돌아보다(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
20	르포르타주	불꽃을 해체하는 사람들
26	조인, 조인!	공군장교에서 치과의사로! 이준민
30	공군의 철학과 사상	『코메트』지에 담긴 보편적 가치
32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병 부대 기념비
38	지금 이 순간!	11월의 참모총장동정 & 공군 소식
42	담벼락	붕어빵
44	책 읽는 공군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
46	첫 독자의 편집후기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이유는? 『내일의 내가 하겠지』
48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대한의군중장 안중근, 군인정신을 말하다
50	Play the Fly	에이스 컴뱃 7
52	Hollywood English	트루먼 쇼
54	트렌드가 보인다	‘억’ 소리 나는 인스타그램 수익
56	재즈가 들린다	즉흥연주 : 모든 연주자들의 로망, 재즈 연주자들의 특권
58	생각하는 그림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을까
60	Fitness	당신이 잠든 사이에 - 건강한 잠에 대하여



표 지(앞) 노을 진 알래스카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

사 진 상사 편보현

표 지 (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8년 12월 1일(통권 제486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소령 조요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8110456)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옥선의 노꾼들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매우 아름다운 항구도시입니다. 인구 13만 정도의 작은 도시지만 유치환, 유치진, 김춘수, 박경리, 전혁립(화가), 윤이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특별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통영은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고장이지요. 통영(統營)이라는 지명도 임진왜란 이후 이곳에 설치되었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약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제영은 1593년 조선 조정이 삼도수군통제사 직제를 새로 만들어 전라좌수사가 겸임하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초대 통제사로 제수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한산도 진영(陣營)이 그 효시가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은 지금의 여수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거점을 확보한 왜군을 대적하기에는 모항(母港)인 여수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수로부터 뱃길로 이틀이 걸리는 한산도에 전초기지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써 조선수군은 부산의 왜군 함대가 쉽게 움직일 수 없게 함과 동시에 해상 보급로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은 당대 최고의 육군(왜군)과 최고의 해군(조선수군)이 맞붙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가 꿈꾸었던 대륙진출의 야망을 이루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는 섬나라였지만 군사들은 육상전투에 특화된 강군이었고 해전 역시 빠른 속도로 적함에 근접하여 배를 타고 올라가 적을 치는 등선육박전(登船肉薄戰)이 주된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일본의 함대 구성은 가까운 거리에서 창과 칼로 싸우는 단병술(短兵術)로 훈련된 전투병 위주였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함대의 주력선인 관옥선은 포를 사용해 함대함으로 싸우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왜

선이 근접하기 전에 화포로 격침시키는 방법으로 이순신은 그때 이미 근대해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전술을 썼습니다.

관옥선은 대략 130~150명이 승선했는데 이 중 80~90명이 노를 젓는 노꾼이었습니다. 즉 전투병보다 지원병이 훨씬 많은 구조였습니다. 이순신은 싸움을 배운 적 없는 민초들을 노꾼으로 썼습니다. 관옥선에는 좌우측에 각각 아홉 개의 노가 있는데 노 한 개당 대략 5명 내외의 노꾼이 교대로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관옥선의 1층에 노꾼들이 배치되는데 창문도 없이 막힌 공간에서 그들은 손에서 피가 나도록 노만 저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포를 쏘아 적선이 근접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조선수군의 전술상, 노꾼들의 노고는 대단했을 겁니다. 노꾼들이 노를 저어 학익진 같은 진법을 제때에 펼치지 못했다면 조선수군의 화력도 제 구실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23전 23승을 만들어낸 이순신 함대의 승리는 노꾼들의 피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날이 선 도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도끼날이 전투병과와 간부를 상징한다면 도끼자루는 지원병과와 병사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끼머리를 키우고 그 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함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끼자루가 그에 걸맞은 크기와 길이로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큰 도끼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의 관심과 사랑이 노꾼들이 있었던 관옥선 1층 격실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순신 함대의 무패 신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순신이 우리 공군에 있다고 믿습니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주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다 *with* 공군 화보사진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를 때, 공군은 국민들에게 ‘올 한 해도 영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군의 한 해는 치열했다. 공군인들의 뜨거웠던 ‘작심 365일!’, 사진으로 함께 돌아보자.

| 2018년 신년비행 |





｜ 신병 수료식 ｜

모든 해에 첫 날이 있듯 모든 공군인에게는 임관일/수료일이 있다.
임무에 마음이 지칠 때면, 각자 첫 날의 다짐을 떠올려보자.



｜ CN-235 주기검사 ｜

‘작심삼일’을 백스물두 번 반복하면 일 년이 되고, 검사를 주기에 맞게 반복하면 안전한 항공기가 된다.

주기검사 : 안전한 훈련·작전 수행을 위해 주기를 정해두고 실시하는 검사. CN-235는 6개월(200시간), 1년, 2년, 4년 주기로 실시한다. 사진은 4년 주기검사의 모습으로서, 항공기의 조종계통과 기체 내·외부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파손 여부를 한 달 동안 꼼꼼히 점검·수리했다.



| 하이드라진 제독 훈련 |

치명적인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것은 내 전우와 장비, 그동안 해온 훈련을 믿기 때문이다.

하이드라진(Hydrazine) : 항공기 비상동력장치에 사용되는 무색의 유독성 액체. 항공기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체를 부식시키고, 인체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하이드라진 제독 시에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요원들이 제독복을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KF-16 무장 장착 |

미사일(missile)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무장이다. 안전한 무장 장착이 완전한 임무 수행을 만든다.



｜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프로그램 개발 현장 ｜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곧 공군의 전력 향상이기에 화면 속 항공기는 SW지원소 부대원들의 열정으로 날아오른다.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 군내 유일의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정비기관. 주요 전투기, 시뮬레이터, 전자전 장비 등에 장착된 임무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성능개선 및 개발을 담당한다.



｜ F-15K 창정비 ｜

사람도 항공기도 휴식이 필요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면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창정비 : 1천 시간, 2천 시간 등 기종별 제작사가 권장하는 주기마다 정비창에서 실시하는 정비. 창정비를 위해 입고된 항공기는 분해-수리-재조립-최종기능점검-시험비행의 과정을 거친다.



｜ 항공유 품질 검사 샘플 채취 ｜

내 가족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듯 깐깐하게! 항공기의 밥은 꼼꼼한 품질 검사를 거친다.

항공유 품질 검사 샘플 채취 : 항공기 운용을 위해서 유류보급은 필수이며, 유류의 품질 역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열차 등을 통해 보급받은 유류는 납품 업체에서 1차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서, 공군은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유류지원에 안전을 기한다.



｜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에 참가한 F-15K ｜

영공 수호를 향한 공군인들의 열정은 영롱한 오로라처럼 빛난다.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 美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전투훈련.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함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공중전투 기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2001년부터 본 훈련에 수송기를 참가시켰고, 2008년 F-15K 현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투기와 수송기 모두 참가하고 있다.



｜ 탐색구조훈련 ｜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조종사가 오늘도 안심하고 출격할 수 있는 이유다.

탐색구조훈련 : 산악지형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훈련으로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 이어지며, 주·야간 전술이동과 은신처 구축 등 산악 지형에서의 생존과 탐색구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숙달한다.



| E-737에서 임무수행 중인 방공무기통제사 |
 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늘은 잠들지 않는다.
 이 약속은 다음해, 그 다음해에도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방공무기통제사 : 레이더, 전술데이터링크 등 최첨단 장비를 운용하여 원거리 공중감시, 전장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과 함께 나의 마음을 돌아보다



연말에는 누구나 ‘나는 올해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11개월도 연말의 차가운 바람을 만나면 어쩐지 허무하게 느껴진다. 각오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고, 또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생각에 괜히 헛헛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단순히 연말이어서, 찬바람이 불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의 지친 마음을 살피볼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친 마음은 어떻게 살피볼 수 있단 말인가.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원들, (왼쪽부터) 이화연 대위, 강병용 소령, 심호규 교수, 이상인 원사.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냥 ‘조금 지쳤을 뿐인데 무슨 상담까지 받나’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상담을 오해하고 있었던 공군인들이라면 아래 좌담회에 주목하라. 월간 공군이 상담교육팀을 직접 만나 상담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풀어봤다.



1년 500여 명 대상 상담교육, 일반 간부 과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

AF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상담교육팀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강병용 소령(이하 강 소령) :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은 공군인들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교육을 개발·운용하는 곳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었으며, 팀장과 현역 교관 3명, 전문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집교육 인원은 500여 명 수준입니다.

AF : 상담교육의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화연 대위(이하 이 대위) : 교육 대상은 크게 일반 간부와 준상담관(주임원사, 교관·훈육관, 교관조종사, 조종군무원, 인사참모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간부에게는 軍 상담기법과 집단상담, 심리적응급처치(PFA : Psychological First Aid)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준상담관의 경우 전문적인 실무상담을 위해 심리상담 이론/실습, 이상심리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AF : 생각보다 폭 넓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전까지는 상담교육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장병들이 상담교육에 대해 알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상인 원사(이하 이 원사) : 일반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과정 시작 2주 전까지 ‘인트라넷 학습포털’의 ‘군사교육 입과자관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입과를 희망하는 장병들이라면 누구나 부서장 승인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상담관 교육의 경우, 입과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며 본부, 작전사, 교육사에서 과정별 입과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강병용 소령



주임원사 상담교육 과정의 모습

상담과 대화를 구분하는 것이 첫 걸음. 상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

AF :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관련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실습 등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전문가가 일주일의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강 소령 :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일주일만으로 입과 자들이 ‘상담은 이렇게 이끌어내야 하는구나.’를 익히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왔구

나’, ‘내가 상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호구조사였고, 그냥 대화에 불과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 원사 : 주임원사 과정을 예로 들면, 주임원사 업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은 ‘병사들이 면담을 하러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분명하면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단기해결’이 아닌 ‘근원치유’ 급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AF : ‘내가 해온 건 상담이 아니라 호구조사였다.’라는 말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외에도 상담 교육 입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담 실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사 : 가장 흔한 경우는 누군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아니라 문제만을 건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거나 다른 장병들과의 어려움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결이 아니라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AF : 그런데 일반 장병들의 인식은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야?’인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은 의미 없어. 결국 해결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상담교육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위 :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해결이 중요해.’라는 인식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게 하고, 속에 있는 진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상처가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거라면, 이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어졌다가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해결책도 좋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그 해결책 안에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근원적인 치유를 하자는 거죠.

AF : 체질개선을 통해 아픔의 근원을 바로 잡는다는 느낌이군요.

이 원사 : 그렇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다녀왔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이 겁니다. 그런데 문제로 나타나는 마음의 병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아픔을 한두 번의 상담으로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아픔을 치유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소령 : 훈육지도와 상담을 혼동하는 경우, 그리고 정신과진료와 상담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보려면 상담관이 아니라 정신과 군의관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약물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상담은 문제가 정신과의 영역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민간에도 없는 PFA¹⁾ 교육 과정, 공군이 선도하다



심호규 교수

AF : 이번에는 PFA(심리적 응급처치) 교육 과정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강 소령 : 맞습니다. 1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15년부터 과목 시수를 조금씩 늘려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교육 과정이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PFA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소방, 경찰 등과 함께 PFA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매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 ‘교육 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교육 과정을 진행해본 결과, 당초 계획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입과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AF : 공군이 PFA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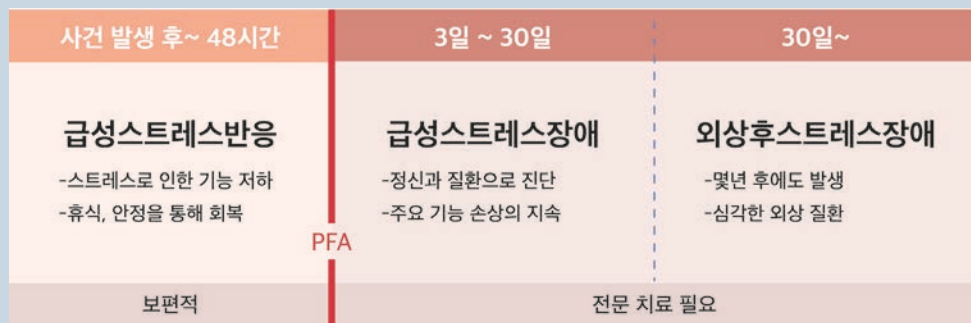
강 소령 : PFA의 선두주자는 아니라도, 교육 프로그램면에서는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 : 올해 처음 신설된 교육 과정이다보니, 공군 장병들에게도 무척 생소할 것 같습니다. PFA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심호규 교수(이하 심 교수) : PFA란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을 초월하는 충격사건(위기,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전시에 급성스트레스장애 같은 어려움을 겪기 쉬운데요, 정작 군인들은 사고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약해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심리적 충격은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급성스트레스장애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심리 회복을 위해 PFA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인 원사



PFA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표. 외상 상황에서 얻은 상처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막고 장/단기적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PFA가 이용된다.

1) PFA(psychological First Aid) :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에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장/단기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외상 사건 경험자의 요구와 관심이 반영된 실제적 지원, 올바른 정보의 제공, 적극적 경청 등이 주요 내용이다.

PFA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데뷔,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 예정

AF : 이렇게 중요한 PFA의 첫 교육이 몹시 성공적이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PFA 교육을 받은 공군 장병들은 실제 임무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심 교수 : 똑같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개념 수준에서 그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잊지 않으려면 계속 재교육도 필요하고요. PFA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PFA를 처음 알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이루고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F : 부대별로 장병들의 PFA팀이 생기려면 교육 과정도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심 교수 :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에는 VR 등을 활용해서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정 자체의 질도 높여가야지요. 외국자료도 계속 보고 현장에도 나가고 소방, 경찰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장을 안 나가보고 PFA 교육을 한다는 건 남의 다리 굽는 것과 같거든요.

강 소령 : 교육 받는 공군 장병들이 늘어나고, 인식이 확대되면 누구든 PFA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거 꼭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술교류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추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낙인’은 상담과 PFA의 가장 큰 걸림돌,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AF : 여러모로 ‘낙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대위 : 맞습니다. 특히 “상담 받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왜? 너 무슨 문제 있어?”라고 묻거나 ‘문제 있는 장병’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 과정 중에 집단상담을 진행해보면, 교육장에 항상 휴지를 비치해놔야 할 정도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임원사반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들 하십니다. 결국 마음 속 응어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상담은 이를 해소해주는 좋은 방법인데, 그걸 다들 잘 모르시죠.

심 교수 : PFA는 결국 ‘내가 약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그냥 마음이 아파서 받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서비스는 받을수록 본인에게 이득이죠. 이런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내년에는 브로셔 등을 만들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AF :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장병들은 ‘다른 장병이 심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심리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장병들이 나에게 선입견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낙인’에 대한 두려움, 쉽게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원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못했던 장병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강 소령 : 병영생활상담관을 별도의 건물에 두는 게 아니라 B.X나 도서관, 식당 인근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병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 특정 장병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이 선행되어서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인식 개선도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요청에 따라 '맞춤 출장 교육'도 실시

AF : 들으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 넓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과정에 입과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으로 정규 과정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꽤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대위 : 예, 적은 인력으로 여러 과정을 소화하려다보니 설 틈이 없습니다. “상담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면 “쉬러 가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하루 종일 수업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질문이 많아서 못 쉬는 경우도 많죠.

이 원사 : 그렇지만 교육 과정이 없는 주에는 일선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출장 강의를 나갑니다. 1시간이든 4시간이든 부대에서 요청해주는 만큼,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이 기회에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 소령 :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AF : 그럼 굳이 입과를 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이 대위 : 사전에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고, 공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규모도 비행단, 전대, 대대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원이 50명 이상만 되면 좋겠습니다.



이화연 대위

손에 찔리면 따끔한 바늘도 눈에 찔리면 치명상... 마음의 문제도 사람마다 달라

AF : 공군 장병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열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시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빠르고 건전하게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대위 : 건강한 사람의 몸도 언제든 다치고 아플 수 있듯이, 마음도 그렇다는 인식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강 소령 : 일교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도 언제든지 변화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자연스러운 건데, “상담 한 번 받고 올게요.”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이 원사 : 확실히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낙인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다들 아셔야 하는 것이, 바늘에 손바닥을 찔리면 따끔하게 아프고 말지만, 눈을 찔리면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너만 힘들어?”, “왜 유별나게 그래?” 그런 말씀,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F :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 저도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월간 『공군』도 장병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F**

2019년 1월호부터는 상담교육팀 심호규 교수의 <공군인의 마음 건강 이야기(가제)>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르포르타주
불꽃을 해체하는 사람들



글
대위 박지완



사진
원사 오규민(10배)
하사 전호(10배)

20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르포르타주 - 불꽃을 해체하는 사람들



악인이 설치해 놓은 시한폭탄을 급박하게 해체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1초를 남겨두고 멈춰선 폭탄을 보며 짜릿해하고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환호하는 모습은 익숙하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이들에게는 삶이자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폭발물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건디는 폭발물처리사를 만나본다.



폭발물 처리시 착용하는 밤 슈트(Bomb Suit).
혼자서는 착용이 불가능해 여러 사람이 도와야 한다.



기동차량 내에 설치된 X-ray 장비로 폭발물 내부를 탐지하고 있는 김민표 상사.

폭발물처리사. 흔히 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로 불리는 이들은 평소 및 전시에 각종 불발탄을 안전하게 처리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군 폭발물처리반은 비상착륙한 항공기에 장착된 무장(미사일, 항공탄, 기총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방공유도탄 폭발물 처리를 지원하며, 민간지역에서 발견된 군용폭발물 또는 탄약의 처리는 물론 각종 테러를 대비한 급조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불발탄처리 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 및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항공기에 장착된 무장(미사일, 항공탄, 기총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항공작전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에 더해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신고가 접수된 유기탄 및 6.25전쟁에 사용되었던 불발탄(항공탄, 포탄, 지뢰 등) 등이 발견되면 안전조치 및 수거를 담당해 민간지역에 대한 폭발물처리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폭발물테러가 급증하고 있는데, 폭발물처리사는 군의 핵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폭발물처리반의 기동차량에서 내려 임무 현장으로 가는 폭발물처리반 대원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비장함이 느껴진다.



그동안 폭발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해체한 뇌관들을 소개하는 김민표 상사.



소용민 상사가 폭발물처리사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종종 그동안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간다고 했다.

폭발물처리사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민표 상사는 단단한 체격에 강인한 눈매를 가졌다. 그는 “실사격 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도 폭발물처리사의 임무인데, 하루는 산간지대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불발탄을 찾느라 정찰을 하다 웃지 못할 일을 겪기도 했었다.”며 “정찰 중에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벌집을 건드려서 십여 군데를 쏘이고 허겁지겁 도망치다 데굴데굴 굴렀던 적도 있다.”고 웃었다.

그는 폭발물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폭발물처리사가 되기 이전에는 탄약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평소 신뢰하던 선임부사관의 권유에 망설임없이 폭발물처리사의 길에 들어섰다.

불발 항공탄 및 포탄의 해체 작업을 설명하고 있는 소용민 상사.

영화같은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소용민 상사는 폭발물처리반의 분위기 메이커다. “2006년, 평택항에 6.25전쟁 때 사용되었던 2,000파운드 항공용 폭탄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했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제가 신관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민간지역에 출동해서 처음으로 실제상황에서 신관 해체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신관 해체작업을 할 때는 행여 있을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 한 사람만 남아 작업을 합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폭발물의 신관을 해체하는데, 마지막으로 신관을 돌려 보내려는 순간 정말 주마등처럼 사랑하느라 가족과 동료들의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아마도 긴장을 많이 한 탓이겠지요. 다행히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안부전화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 상사의 말이다.



제1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사 김의상 중사가 아츠(ARTS) 장비에 탑승해 장비를 기동하고 있다.



아츠(ARTS) 장비의 조종석에서 바라본 장면.
복잡한 조종 장비들이 얹혀 있다.

폭발물처리반에는 활주로에서 불발탄이 발생했을 경우 원격으로 운용해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름하여 아츠(ARTS, All-purpose Remote Transport System)가 그것이다. 전시에 활주로나 폭격을 받거나 자탄이 깔리게 되면 당장 이륙해야 할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항공작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럴 때 신속한 활주로 확보를 위해 아츠가 투입된다. 상황에 따라 장비를 바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대단히 높다. 활주로에 깔린 다량의 불발탄을 밀어낼 때는 불도저형으로, 무거운 대용량 항공탄을 제거할 때는 집게형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아츠 장비의 놀라운 점은 불발탄에 접근하는 것부터 활주로에서 불발탄을 제거하는 과정을 모두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메라로 전송되는 영상을 원격 조종 장치에 부착된 화면으로 확인하며 조작할 수 있고, 최대 1.5km까지 떨어져도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불발탄이 발생하더라도 걱정을 꼭 붙들어 댈 수 있다.



아츠(ARTS) 장비는 기동부터 활주로에서 불발탄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활주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견된 불발탄의 처리 역시 이들의 몫이다. 추운 겨울에 한강 철교 아래에서 6.25전쟁에 사용되었던 항공폭탄이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출동하기도 했다. 폭발물처리사들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추운 강물 아래로 뛰어들어가 폭탄을 인양했다. 뼈곳하는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폭발물처리사다.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여유가 넘치고 낭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나'고 묻자 왼쪽 가슴에 달린 폭발물처리사 흉장을 자랑스레 만지작거리며 수많은 현장에서 곳곳하게 임무를 수행해온 선배들을 따라 폭발물처리사로 중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날까지 폭발물처리사로 임무를 수행하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농사꾼의 꿈을 말하기도 했다. 'E.O.D.'라는 단어를 품고 빛나는 눈동자를 번쩍이는 이들. 홀로 폭발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이들의 뒷모습에서 "I will be back"이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터미네이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들의 고독하지만 가치 있는 싸움을 응원한다. **AF**



급조폭발물을 처리하고 있는 폭발물처리사. 폭발물 제거 현장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명의 폭발물처리사만이 남게 된다.

제10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사들.
각자 다른 이유로 폭발물처리사의 길에 들어섰지만 끈끈함과 전우애는 다름이 없다.





이플란트 치과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제31화



공군장교에서 치과의사로!

치과 원장 **이준민** (공사54기)

흔히 전직(轉職)은 절벽을 뛰어넘는 일로 비유되곤 한다. 성공하기가 아주 힘들뿐더러, 뛰어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공군장교에서 치과의사로 전직에 성공한 뒤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물이 있다. 전혀 다른 분야로 보이지만 ‘국민을 지키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이준민 원장을 만나보았다.

Prologue_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시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뵈게요!”

한 마을주민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자, 이준민 원장(공사54기)이 서둘러 달려가 도와주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숍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마치 친구가 놀러온 양 반갑게 맞이한다. 밀양이 비록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마을이 아니거늘,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런 필자의 심정을 눈치 챈 듯 이준민 원장이 말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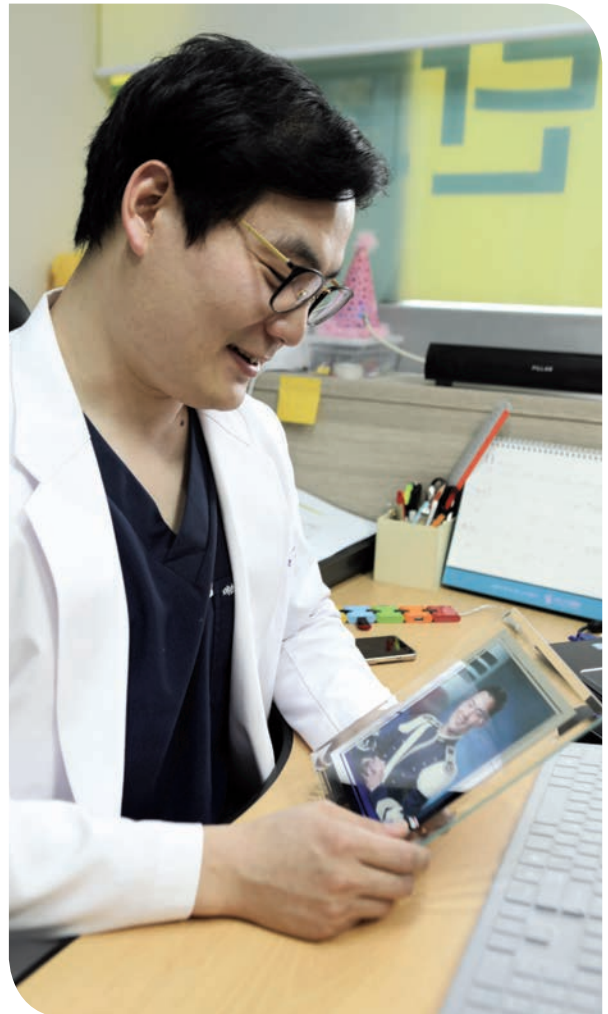
나에게 공군이란? 인생의 기반!

이준민 원장을 따라 원장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의 사진이 눈에 띈다. 생도 시절의 사진이다. 벌써 10년도 지난 시절의 사진을 전시해둔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공군이 제 인생의 기반이자 근본이기 때문이죠.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힌 게 정말로 제 인생의 기반이 되었어요. 체력, 사고, 경험, 가치관… 게다가 힘들 때 이 사진을 보면 ‘그래, 내가 그 시절도 이겨냈는데 뭔들 못하겠어?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도 들고요(웃음).”

현재 밀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이준민 원장. 그는 독특하게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어린 시절 공군 김해기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군장교를 꿈꿨는데, 그렇게 선했던 공군장교가 되었음에도 전역하여 의사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공군장교의 삶도 보람 있었지만,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즐기고 의학 쪽에 계속 관심이 갔기에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군장교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공군 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서는 소대장을,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단장 부관을 역임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도왔다고 한다.

▼ 이준민 원장이 생도시절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은 평소 사무를 보는 책상 위에 항상 올려져있다.





▲ 이준민 원장은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지고,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다. 사진은 그가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아시다시피 공군 학사장교후보생은 다양한 분야의 출중한 인재들로 구성되잖아요? 또, 단장님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사회저명인사를 만나게 되고요. 소대장을 하면서, 또 단장님을 수행하면서 ‘세상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공군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저와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공군에서 배운 ‘사람의 중요성’

‘사람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그의 말처럼, 병원 내에서는 모두가 친밀한 듯 보였다. 다소 권위적일 수 있는 원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이준민 원장은 직원 누구와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소통했다. 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사람의 중요성을, 아버지와 공군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지금은 정리하고 저희 치과의 이사로 계십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공군에서 소대장과 부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꼈죠. 일과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일을 해내는 건 사람이니까요.”

이어서 그는 스마트폰의 한 채팅방을 보여주었다. 이름인 즉 「24비행단」. “제가 단장이예요.” 이준민 원장이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교육사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맡았던 2중대 4소대를 따서 24비행단이라 명명하

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당시 학사117기로 임관한 이들은 현재 대부분 전역하고 사회에서 의사, 변호사, 벤처회사 대표, 고급공무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사54기 6중대 동기들과는 매년 대전 현충원에 찾아가요. 이걸 좀 슬픈 이야기지만……비행임무도중 순직한 조종사 동기가 있거든요. 매년 조금씩 돈을 모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참배를 가죠. 공군에서 배운 ‘사람을 남긴다’는 교훈을, 공군과 함께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그는 군생활 중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로 ‘믿음 자전거’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충청타임즈에 소개된 일화를 꼽았다. 급한 용무가 있는 장병들을 위해 자신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믿음 자전거’라는 이름표를 붙인 것. 기사에서 ‘이준민 중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과 사람을 움직이는 건 ‘규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전거는 19비 가족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공군 복무 시절 사람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그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이준민 의사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소대원들과는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있다고 한다



마음만큼은 여전히 군인입니다

의사가 된 이후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준민 원장. 제대 후 1년 만에 치과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약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른 동기들은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본인은 재밌게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의사로서의 삶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떨어진 것이리라. 그러나 마음가짐만큼은 여전히 군인일 때와 똑같다고 말했다.

“군인은 총을 들고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 의사는 메스를 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죠. 역할이 다를 뿐, 국민을 지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준민 원장에게 앞으로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다.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는 공군과 관련된 것으로, 그는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치과 의료수준을 크게 발전시켜 전 세계에 ‘한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에도 치과를 세우고 싶다는 말과 함께, 그는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 취미로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준민 원장.
개원 당시 사진이 눈에 띈다. 현재 직원은 당시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상태라고 한다.

“저는 비록 제대했지만 지금도 군복무시절 못지않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역할에 성심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군 장병 여러분! 공군에서의 모든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자산이 될 테니,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AF





공군의
철학과
사상

『코메트』지에 담긴 보편적 가치

『코메트』지는 창군 초기의 공군 기관지로서 월간 『공군』의 전신이다. 『코메트』지에는 당대 공군인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과 유명 문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담겨 있으나, 한문 혼용에 세로쓰기로 되어 있어 장병들이 읽기 어려웠다. 이에 본부 정훈공보실에서는 『오래된 미래-공군정신의 원형탐구』를 발간했다. 『오래된 미래』에는 『코메트』지에 대한 분석과 원문 일부에 대한 한글 번역이 담겨 있다. 장병들이 『코메트』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래된 미래』는 월간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www.afzine.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래된 미래-공군정신의 원형 탐구』 표지

몸이 일상적인 활동부터 극한의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여 극대화된 지적활동이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상식’이 바탕이 될 때이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도 그 근본에는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이 자리하고 있다. 『코메트』에 담긴 정신이나 사상들도 모두 상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만 냉전 시대라는 현실 속에서 냉전적 사고와 가치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의 문제와 얽혀 일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코메트』에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냉전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지난 10월 말 『오래된 미래-공군정신의 원형탐구』(공군 본부 발행)의 초판이 발간되었다. 6.25전쟁 기간 활약한 공군 기관지의 전모를 한 세트의 책으로 다 밝힐 수는 없었다. 다만 당시 공군인들이 남긴 한 시대의 절절한 기록이기에 그에 대한 해석은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고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했고 그러한 방향에서 집필을 하였다.

금번 이 책의 기획과 집필 및 발간은 『코메트』를 통하여 당시의 실상과 사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첫걸음이었다. 또한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은 『코메트』지에 담긴 ‘상식’과 ‘보편적 가치’들이 앞으로 더욱 확고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기에, 이 제목에 깊이 동의하고 공감한다.



1953년 6월 제10전투비행단 작전처의 부사관들

평론가 박기준(朴琦俊)은 「세계에 호소할 한국의 저력/저력과 자조」(『코메트』 제2호, 1953년)에서 당시 한국인의 숙명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자기만의 책임이 아닌 전후 세계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그 귀결이 인류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리라는 어마어마한 순간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저력은 어떤 힘의 절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초인적인 저항력에 있다. 이것을 기적적 인내력이라 해도 좋고 수난자의 영웅적 투쟁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 허와 무의 절대에서 실과 유를 체험하는 위대한 순교자의 힘을 우리의 저력이라 한다.”

65년 전의 한국인의 실존적 자각은 현재에도 그 울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편, 『오래된 미래』 발간에 즈음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코메트』지는 공군의 창군 전후에서부터 공군의 각 병과 그리고 체트기 도입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헌병, 정보 등 특수 병과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병과들에 대하여 이번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헌병 병과는 전쟁초기 여의도 탈환작전 등으로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을 낚는 등 전쟁기간 내내 험난한 일들을 앞장서서 수행하였다. 정보 병과는 전쟁 전부터 북한군의 동향을 일일이 탐색·보고하였고 전쟁기간 내내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으며 가장 위험한 작전을 펼쳤다. 특히 1951년 4월에는 평남 청천강에 강하하여, 추락한 미그 15기의 주요부품을 빼오다 요원이 전사하였다. 이 희생으로 우방국은 미그기의 비밀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낙동강 전선에서 T-34의 약점을 간파한 것, 그 외에 적진에서의 무수한 첩보활동 속에는 공군 정보팀의 목숨을 건 노력이 있었다.

비록 『코메트』지에 이들의 활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들의 지향했던 정신과 사상은 『코메트』지에서 강조했던 공군정신의 발로임도 두말할 것 없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이들의 숨은 공로와 활약, 그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AF**



나의 공군역사 탐방기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병 부대 기념비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 개 있다. 1991년 비마부대가 참전한 '걸프전 참전 기념비'와 2001년 청마부대가 참전한 '대테러전 참전 기념비', 그리고 2004년 다이만 부대가 참전한 '이라크 자유작전 참전 기념비'가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 파병됐던 다이만 부대가 해단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8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공군 파병사(史)'를 돌아보자.



비마, 청마, 그리고 다이만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Middle East).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붙여진 별명이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걸프 전쟁이 발발한다. 이에 우리 공군은 1991년 2월 제56항공수송단(비마부대)을 창설하여 국군의 로지원단의 병력수송과 다국적군 환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C-130 수송기 5대와 1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마부대는 아랍 에미리트(UAE) 알아인(ALAIN) 기지에 파병되었으며, 1991년 4월 귀국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 단체에 납치된 민간항공기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미국방성에 자살테러를 감행한다. 세계 80여 개국의 3,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9·11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건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개시한다. 이른바 ‘항구적 자유 작전(대테러전)’이다. 유엔결의에 따라 정부는 아프간 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공군은 2001년 12월 제57항공수송단(청마부대)을 창설하여 싱가포르-디에고 가르시아 구간의 정기공수와 괌·필리핀·태국으로 전개하는 비정기공수를 지원한다.



- ① 비마부대 장병들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 ② 청마부대 조종사들이 디에고 가르시아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③ 디에고 가르시아에도 청마부대 참전기념비가 설치되었다.



한편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수호와 테러리스트 기반 제거,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폐기 등을 목표로 2003년 이라크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이라크의 자유 수호를 위해 UN은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군을 파병했으며, 우리 공군

또한 2004년 8월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를 창설하여 쿠웨이트 알 살렘 기지로 파병한다. 다이만 부대는 2008년 12월 해단하기까지 4년 동안 '6,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해외공수임무를 지원한 공군 파병 부대

비마 부대·청마 부대·다이만 부대의 주요 성과

부대명	비행거리	비행시간	인원공수	화물공수
 비마	240,000km	461시간	1,405명	713톤
 청마	1,445,870km	2,878시간	600명	310톤
 다이만	3,310,000km	6,177시간	43,905명	4,572톤

를 기념하기 위해 5비에 세 개의 비석이 세워졌다. 비마 부대의 상징인 독수리 날개를 형상화한 '걸프전 참전 기념비', 세계무역센터를 상징하고 과거를 잊지 말자는 의미를 가미한 '대테러 작전 참전 기념비', 사막의 거친 모래

바람을 이겨낸 대한민국 공군의 견고함을 상징하고 중앙에 이라크 지도를 배치한 '이라크 자유작전 기념비'다. 늠름하게 세워진 기념비들을 보며, 파병에 참여했던 장병들의 자부심과 위풍당당함이 느껴졌다.

다이만 부대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해외공수임무를 지원했다.



다이만 부대 요원이 C-130 수송기와 교신하고 있다.



다이만 부대가 말하는 다이만 부대

거대한 조형물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는 듯 가만히 서 있을 뿐, 지나가는 장병들도 일상 속에 녹아들어난 기념비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참전했던 장병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 일 터. 이라크 자유작전(다이만 부대) 참전 당시에는 조종사 부조종사로 근무했지만 이제는 각각 항공작전전대장 제251 비행대대장이 되어 5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연학 대령(공사 41기)과 안효삼 중령(공사 47기)을 만났다.



5비 항공작전전대장 정연학 대령(공사 41기)

다른 임무와 마찬가지로, 파병에서 수송임무는 다수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다. 특히 2005년에는 영국군의 C-130 수송기가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사일에 의해 피격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파병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두 사람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AF : 임무를 수행하며 위험천만한 순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연학 대령 : 영국군 수송기가 피격되고 일주일 후 바그다드로 가는 수송기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 합참의장님을 모시는 임무였던지라 특히 더 긴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공격받진 않았지만, 언제 박격포가 날아올지 몰라 긴장상태로 기다렸습니다. 또, 파병 초기에는 모

술기지에 수송기를 주기하다 적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전 인원이 긴급히 방공호로 대피한 적도 있었고, 아르빌 기지에서 이륙하자마자 지대공 미사일 공격 신호가 잡혀 플레어를 작동하며 저고도 회피조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이만 부대가 무사고 1,000시간 비행기록 수립을 기념하며 촬영한 사진. 정연학 소령(당시 계급, 사진 가운데 꽃을 든 인물)이 1,000시간을 달성했다.

AF : 군사적 위협 외에도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정연학 대령 : 낮에는 기온이 57°C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차 동차 보닛에 계란을 떨어뜨려봤는데, 바로 익더군요. 물도 대부분 석회수라 이를 닦지 못했고, 세탁기도 석회에 의해 자주 막혔습니다. 신발 안에 흙이 전갈이 들어가지는 않았나, 늘 확인했어야 했구요.

안효삼 중령 : 영화 <미이라>에 나오는 모래폭풍 아시죠?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모래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문을 굳게 닫아도 실내에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늘 착용하고 살았죠.

AF : 그럼에도 한국 공군은 ‘6,000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냈습니다.

정연학 대령 : 미세먼지 차단 특수커버를 비롯한 자체보호 장비를 장착했고, 지대공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술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발에서 농부로 변장해 있다가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착륙 시 항상 다른 방법의 전술비행을 실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안효삼 중령 : 한국 공군에 대한 신뢰도는 미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국적군의 수송기는 결코 탑승하지 않았는데, 오직 우리 공군의 수송기는 안심하고 탑승했습니다. 다국적군 가운데 우리 공군의 가동률이 가장 높았기도 하고요.¹⁾

두 사람은 평소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연마한 전술비행 능력과 한국군 특유의 단결심·적응력, 그리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길 원했던 국민과 가족들의 염원 덕분에 안전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통 새벽부터 임무를 수행했는데, 다들 기상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각자 가족사진을 보거나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비장한 심정은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5비 제251비행대대장 안효삼 중령(공사 47기). 왼쪽 가슴에 부착된 251대대 마크가 눈에 띈다.

AF :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의미 있는 파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학 대령 : 다국적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초기 연합군 작전과 이라크 재건에 도움을 준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송기의 작전 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했다는 점, 군사적 위험지역 내에서 실전적으로 항공작전 임무를 경험했다는 점은 우리 공군에도 큰 성과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중동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효삼 중령 : 제251비행대대는 파병됐던 수송기 C-130H/J를 운용합니다. 대대구호는 ‘ANY TIME, ANY PLACE’인데, 대대구호처럼 언제 어디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5비 태극광장에 세워진 참전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해외 파병·재난구호 공수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선포로 나설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AF : 마지막으로 월간 「공군」의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연학 대령 : 이라크 상공에서 수도 바그다드를 보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그다드는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타국의 항공기가 마음껏 지나다니는,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 국가가 되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과거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늘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안효삼 중령 : 우리 공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르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라도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맑거나 흐리거나 어두워도 공군은 영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F**



1) 2005년 1월 15일자 국방일보 기사 '공군 다이만부대 ③-미세먼지 차단용 특수커버 개발 '안전비행' 완벽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우리 정비사들의 정비 능력은 대단해 이곳에서도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함률이 0.04%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미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역사] 이순신은 천재가 아니었다

이순신은 천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 번의 파면과 두 번의 백의종군의 기록으로 볼 때 당시 관료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는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23전 23승의 불가사의한 승리를 거두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비무환이나 거북선 창제 등을 승리의 요인으로 꼽지만 저자는 '리더십'의 발현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에서 이를 4가지 내면가치로 정리했다.

어느 시대에도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각자의 목표를 위한 치열한 삶과 개인의 노력은 있는 법이다. 극복해야 할 위기와 도전해야 할 과제 또한 언제나 존재한다. 나라를 위해, 조직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순신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움이 끝나면 결과에 초연한 이순신의 성공요인'에 대해 저자는 30여 년의 공부를 통해 일정한 체계와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명쾌하게 전해준다.

김종대 / 시루 / 2016.08.03 / 422페이지 / 16,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인문] 비즈니스, 정치, 문화의 미래에 대한 선명한 예측

10년 전 『마이크로트렌드』를 통해 작은 집단의 행동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설명했던 마크 펜이 『마이크로트렌드X』로 돌아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몇 개의 큰 힘이 세상 돌아가는 법을 결정하던 메가트렌드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일어난 혼란스러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탄생하여 앞으로 10년간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갈 50개의 새로운 마이크로트렌드를 소개한다. 비즈니스에서 마이크로트렌드는 어떤 기술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소비자는 누구인지 알려주고 다음 선거에 누가 부동표가 될지, 그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알려준다. 과학과 의료에서 마이크로트렌드는 심각한 질병들의 치료법을 찾아내고, 인구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처하게 한다. 이처럼 미래를 바꿔놓을 마이크로트렌드를 통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총횡무진 파헤친다.

마크 펜, 메러디스 파인만 / 더퀘스트 / 2018.06.27 / 584페이지 / 22,000원



제11전투비행단, '18년 전투지원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11월 5일(월) '18년 전투지원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장장착·탄약조립뿐만 아니라 TAURUS 급·배유, POD 장착 등 실질적인
TAURUS 지원 절차 숙달 및 정비사 간의 팀워크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참모총장, 해외 군사외교활동 전개

참모총장은 11월 4일(일)~11일(일) 미 공군참모총장 공식 초청에 의해 미국을 방문하여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참모총장은 미 공군본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를 방문하여 미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드핀(David L. Goldfein) 대장과 북부사령관 테런스 오샤너시(Terrence J. O'Shaughnessy) 대장 등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과 양국 공군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군작전 전승 기념행사 주관

참모총장은 11월 1일(목) 강릉기지에서 열린 '공군작전 전승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6.25 출격조종사를 포함한 참전전우회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영공수호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3훈비,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8일(목) 대량전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량전상자 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비, 귀순항공기 유도절차 훈련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8일(목) 적 항공기의 귀순 상황을 가정한 귀순항공기 유도절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전비, '18-2차 전투태세훈련(ORE)

제8전투비행단은 11월 5일(월)~8일(목) 전투대비 태세 확립 및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8-2차 전투태세훈련(ORE)을 실시했습니다.



15비, 인도네시아 인도적 지원 공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1월 9일(금) ~ 30일(금)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수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17전비, '18년 전투지휘검열(ORI)

제17전투비행단은 10월 29일(월)~11월 9일(금) 비행단 위기관리능력 향상 및 완벽한 작전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전투지휘검열(ORI)을 수감했습니다.



18전비, 대량위험물 저장소 합동소방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1월 6일(화) 화재진압능력 숙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강릉소방서와 대량위험물 저장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담벼락

그 일흔두 번째 이야기

「붕어빵」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제402대대

상병 박진호



붕어 없는 붕어빵

붕어빵은 겨울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이다. 붕어빵 안에는 보통 팔이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는 팔뿐만 아니라 슈크림, 피자, 고구마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붕어빵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왜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는 것인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팔빵에는 팔이 들어가고 크림빵에도 크림이 들어가는데, 붕어빵에는 왜 붕어가 없는 것인가? 당연할 줄 알았던 사실이 실제로는 아닌 것이다.

공군을 접하기 전 '공군'이라 하면 전투기를 곁에 두고 영공을 날아다니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화에서나 보는 조종사의 모습만 상상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다. 내가 배정 받은 보급특기의 경우 전투기를 직접 다루는 일은 없었고, 그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고 운반하는 일과를 보내는 것이 내 군생활의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그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군 생활이 과연 공군 장병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고민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가 창고에서 다루는 물자들이 영공 수호를 위한 주요무장이자 전투기의 자재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주변 간부님들을 통해, 이러한 자재들이 전시 상황에 즉각적으로 보급되지 않으면 전투와 작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길 들었다.

우리 공군에는 다양한 군사특기를 가진 장병들이 있다. 모든 공군 장병이 매일 무거운 총을 들지도, 항공기를 타고 영공을 누비지도 않는다. 일부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를 다하고 있다. 다양한 특기를 가진 군인들이 모여 군대라는 조직을 이루고, 실전적인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붕어 없는 붕어빵은 당연할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난 음식이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바삭한 붕어모양의 빵과 다양한 토핑이 추운 겨울, 우리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우리 공군도 그렇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만이 공군의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각자의 특기를 가진 대한민국 공군'이 우리 공군의 모습이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표준화평가과
상병 장재혁



붕어빵 같은 사람

얼마 전 휴가를 나갔을 때의 일이다. 10월이었지만 생각보다 꽤 쌀쌀해진 날씨에 사람들은 모두 몸을 움츠린 채 빠르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나 또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집으로 향하던 도중, 너무나 신기한 광경에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 붕어빵을 파는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대로변의 끝에서 끝까지 서있는 줄을 보고 문득 생각에 잠겼다. 작년에도, 그전 해에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던 가게에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을까. 답은 '여전함'이었던 것 같다. 작년 겨울에도, 그전에도 붕어빵의 가격과 개수는 웬만해서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 추운 날, 차가워진 우리의 손을 덥혀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아는 듯이. 어디 한 곳에 들어가 몸을 녹이기 위해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오늘날이다. 그만큼 커피 한 잔의 가격도 부담이 될 정도로 올랐고, 지갑 속에 있는 천 원짜리 몇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 때에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는 붕어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다른 가게나 음식들이 새로운 맛, 다른 가게보다 뛰어난 것들을 자랑할 때, 변

하지 않음은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노력과 성적을 가지고 비교 받는 경쟁에서 벗어날 거라 꿈꾸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실적과 평가가 있고, 남모를 비교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 외적이든 혹은 내적이든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다. 군대에 가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취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내 미래인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꿀꿀해질 때도 많았다. '넌 걱정이 없는 게 제일 걱정이야'라며, 모두가 변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는 질문이 스스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붕어빵 같은 사람이고 싶다. 세상에 붕어빵보다 훌륭한 간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카페에 가면 새로운 메뉴들이 반기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메뉴들도 많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새로운 맛을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맛을 내는 붕어빵들도 많지만, 여전히 꾸준히 사랑받는 건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붕어빵이다. 굳이 더 나아지려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 그 붕어빵처럼 나도 나이고 싶다.

11비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일병 윤희원



할매와 붕어빵 냄새

붕어빵엔 과연 물고기가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나의 붕어빵에 대한 첫 기억이었다. 그 나이, 태권도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붕어빵에 대한 내 생각은 꽤 엉뚱했음에도 모른다. 항상 태권도장 밑 1층 열쇠방 옆에서 붕어빵을 팔던 할매는 잔주름과 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글쎄...”

할매의 뒤를 흐리는 말과 얼굴에 한껏 물결치는 잔주름에 이끌려 돌아가는 길에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물고기가 들어간 붕어빵’과 담배 연기처럼 걸음 따라 뒤로 흘러가는 붕어빵 향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겨울이 되면 언제나 붕어빵과 잔주름 섞인 웃음을 내어 파는 할매. 집구석에서 꺼내온 곰팡내 나는 100원짜리들은 할매의 품속에서 고소한 향이 나는 붕어빵으로 구워졌다. 나는 그렇게 버석거리는 빵과 들쭉거리는 팔 양금에서 겨울 냄새를 맡는 것이다. 여전히 궁금한 ‘물고기가 들어간 붕어빵’과 함께.

생각보다 빨리 미지근해지는 붕어빵처럼, 나도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다. 나는 태권도장 창문 밑에서 붕어빵 냄새가 나길 기다리

는 아이였고, 소년이었으며, 학생이었다. 할매의 잔주름이 늘어날수록 나의 키도 점점 커졌고, ‘물고기가 들어간 붕어빵’에 대한 궁금증은 ‘용가리 빵’에게 박살난 지 오래였다. 설마 ‘용가리 빵’에 용가리가 들어가겠는가.

용가리 빵에 박살난 건 내 상상력만이 아니었다. 어떤 아저씨가 차린 용가리 빵은 할매의 수입을 박살냈고, 할매 또한 자연스레 다른 학원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 겨울마다 붕어빵을 사먹는 일등 공신이었고, 그렇기에 할매는 윗가게 직전 나에 게 공짜로 붕어빵 하나를 건넸다.

“할매, 다른 곳으로 가요?”

나는 슬슬 변성기가 오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굵어진 머리로 그럴 저력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말에 할매는 주름진 웃음으로 침묵했다. 할매는 열쇠가게 옆자리에 붕어빵 구운 냄새를 남기고 사라졌다. 할매는 9번째 겨울, 붕어빵 냄새와 함께 사라졌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지금을 기준으로 얼마 전. 소주를 걸치고 돌아오는 골목에 들어온 붕어빵 냄새에 할매를 떠올린 건 우연이었을까. 물론 붕어빵을 팔고 있던 할매는 그때의 할매가 아니었고, 붕어빵은 두 개에 천 원이었지만, 나는 그 붕어빵에서 추억을 떠올렸다. 추억의 가격은 분명 네 개 천 원이었다. 나는 조금 달라진 가격에 쓴웃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할매는 지금도 어느 골목길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만약 아직도 있다면, 찾아가서 천 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 추억을 한 봉지 받을 것이다. 고소한 추억을 말이다.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글
제2방공유도탄여단 8199부대
병장 배도현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인생에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되는 부모님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까지.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에서 시인은 만나지 못하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내가 살아 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두엇쯤 당신이 있다. 만나면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에게는 살아온 시간 속에서 일부를 함께한 사람, 그러다가 문득 그의 곁을 떠나버렸거나, 그것도 모자라 저 세상으로 이주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 사람들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는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떠나기도 하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당신’을 만나면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나와 함께 하던 ‘당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짧은 시간일 지라도 되돌릴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순간들 중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순간들이 ‘당신’과 함께 떠나버렸기에 용서를 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몇 번이

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에. 후회되고, 미안했던 그 순간들로 잠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미인을 생각하다 잠드는 봄날, 설핏 잠이 깼 때마다 나는 몸을 굴려 모아둔 열(熱)들을 피하다가 언제 받은 적 있는 편지 같은 한기를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던 것”(『미인처럼 잠드는 봄날』)처럼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 이별 속에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사람들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당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은 ‘영원’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쯤 ‘당신’이 그리워질 때면 이 시집을 꺼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과 함께 있던 곳으로 몇 번이고 돌아가야겠습니다.

문학동네시인선 032 박준시
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지음
문학동네 펴냄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고결했던 그의 삶

고흐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단연 세잔이지만,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 쇠라, 고흐, 고갱을 꼽겠습니다. 화가의 삶이란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채워졌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무릇 사람들은 예술가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걱정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있을 거라 자주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순간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화가인 고흐의 삶이 궁금했고, 편지는 그의 삶에 가장 내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였기에 선뜻 이 책을 뽑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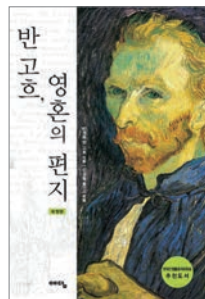
이 책은 테오와 고흐가 왕래한 600여 통의 편지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책입니다. 테오는 고흐가 청년시절 일했던 화랑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입니다. 고흐는 수입원이 없었기에 테오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고흐는 생애동안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며 그림에 거의 모든 것을 바쳤고, 유명해질 때쯤 자살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죽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테오도 6개월 후명을 달리합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팔기 위해 그리는 그림은 영혼이 없다며, 그런 형편없는 그림은 그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돈이 되던 회화는 귀족이나 교회에서 걸어놓을 법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아카데미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되고, 소재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고흐는 밀레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며 초기에 농촌 그림이나 농부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연히 이를 자신의 집에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많은 값을 쳐주

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그가 결국 이뤄낸 아름다운 그림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길게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정을 갖고 고통을 이겨내며 차근차근 해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고통 받았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자신의 강한 열정과 테오, 그림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통으로 점철된 생은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고난, 그리고 그것을 뚫고 이겨 내어 창조해낸 그의 그림들이 고흐를 불행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의 삶은 가치 있고 고결하였다고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것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겁니다. 고난의 길은 선험적으로 내가 인식한, 신이 부여한 길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단호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본능에 의지하라. 아둔한 이성인 인식하지 못한, 해낼 수 없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받아들여라. 단 하나의 필연의 길을,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집요하게 추구하라.' 그리하여 속에서 끓어오르는 단 하나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너만의 의무를 행하라.'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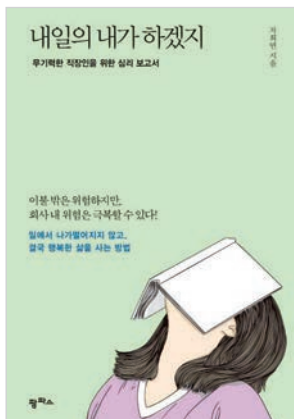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반 고흐 지음
예담 펴냄

글
제18전투비행단 112비행대대
병장 박대산



첫 독자의 편집후기



『내일의 내가 하겠지』

차희연 지음
팜파스 펴냄 | 204쪽 | 12,800원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이유는? 『내일의 내가 하겠지』

“갑자기 모든 게 다 싫어졌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의 설렘, 목돈이 쌓인 통장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 취미 생활을 하며 얻은 흥겨움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지난해 취업 관련 사이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910명을 대상으로 ‘회사 우울증’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기력감에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가 68.9%였다. 이렇듯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늘고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이야기하는 곳은 드물다.



‘HRD VITA Consulting’ 대표로 현재 감정조절코칭연구소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차희연은 “무기력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지 가장 중요하다”며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많더라도 실행할 수 없고, 좋아 보이는 해결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사람의 무기력감에 담긴 심리학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무기력감을 개선할 방법을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자가 주장하는 무기력감의 근본 원인은 ‘통제권의 부재’다. 개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면 쉽게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저자는 몇 가지 연구를 제시한다. 1967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된 ‘화이트홀(Whitehall)’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개인은 직장 내 다른 사람이 업무를 통제해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수 없을 수



록 무기력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또한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높았다. 이는 1965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한 쌍의 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기충격 실험과 같은 맥락이다. 시험실에서 전기충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개는 통제할 수 없었던 개에 비해 주도적으로 행동했다.

사회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기 싫어 미루려 하는 이유, 자신보다윗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에 가기를 회피하는 이유도 '통제권의 부재'로 인한 무기력감을 경험하기 싫어서다.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직장 상사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직장 상사의 행동에 따라 부하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한다. 할 일은 많은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데드라인이 가까워지자 일을 시작하는 행태는 자신이 그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즉 일에 대한 '통제권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급이 오르는 등으로 사회에서 통제권이 늘어나더라도 무기력감은 쉽게 극복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직급이 높아져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길 수 있는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삶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저자는 "인간의 무기력과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며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주장하기만 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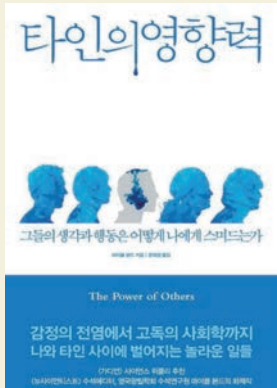
저자는 무기력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잘 쉬어야 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야근에 회식까지 시달리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보충하기 바쁘다. 아무리 꼭 쉬어도 피로감은 나아지지 않고 업무 능력까지 떨어져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스마트폰처럼 휴식을 방해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으로 평일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방해받지 않고 무조건 쉬겠다는 시간을 정하고 철저히 지킨다. 휴식할 때는 3·2·6 호흡법이 좋다. 3~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채 2~3초 머문다. 그 후 6~8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내뿜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자신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해보자. 자신의 인생에 통제권을 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한층 쉬워질 수 있다. **AF**

01.



『타인의 영향력』

마이클 본드 지음 | 문희경 옮김
여크로스 펴냄 | 384쪽 | 17,000원

02.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

뇌부자들 지음·김보통 그림 | 아르테 펴냄
360쪽 | 16,000원

01.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내 안에서 발현된 진짜 '내 감정'일까?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이클 본드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뉴스를 보고 슬픔이나 공포를 느낄 때, SNS에서 '좋아요'를 누를 때, 심지어 밥 먹을 때조차 우리는 타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책은 타인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가장 악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선하고 긍정적인 면까지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02.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청취자들의 사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의 습관을 진단한다. 다섯 명의 내담자가 다섯 명의 치료자를 만나 상담을 받는 과정을 다섯 꼭지의 짧은 소설로 구성했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록을 실었다. 사이사이 김보통 작가의 따뜻한 그림들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와 위안을 선사한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대한의군중장 안중근, 군인정신을 말하다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은 명사수였다. 그는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근위대 앞을 지나는 노란 얼굴과 흰 수염의 노인에게 네 발을 쏘았다. 이 중 세 발이 명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맞춘 자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안중근은 뒤따르던 일본인 무리 중 ‘가장 의젓해 보이는 자’들을 향해 세 발을 더 쏘았다.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수행 비서관 모리, 만주철도 이사 다나카 세 사람이 총알을 맞았다.

안중근은 순간 고민했다. “내가 혹시 죄 없는 민간인을 쏜 것은 아닐까?” 흠칫 하는 동안 러시아 헌병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안중근은 만세 삼창을 했다.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대한독립만세!)”

그러곤 권총을 거꾸로 잡고 러시아 헌병에게 건네주곤 당당하게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의 일이었다.

체포된 안중근은 자

신을 ‘전쟁포로’로 처우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은 대한의군(大韓義軍) 중장(中將)으로 적을 사살했으니, 군인으로서 자신을 대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장군으로 임명할 조국은 사실상 스러진 상태였다. 더구나 그에게는 군복도 없었고 소속을 알려줄 증명도 없었다. 때문에 일제(日帝)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갔다. 원한에 휩싸여 국가 지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간악무도한 자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안중근은 분명 군인이며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본받아야 할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통한다. 왜 그럴까?

진정한 군인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무력을 쓰지 않는다. 군인이 행사하는 힘에는 ‘정당함’과 ‘정의로움’이 깔려 있다. 안중근은 무작정 일본을 증오하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그는 오히려 일본이 정말 잘 되기를 기원했다. 나이가 한국과 일본, 중국이 힘을 합쳐 아시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천황은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대한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럼에도 왜 일본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하는가?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 잘라 말한다. 그래서 그는 동양의 평화와 대한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이토를 쏘았다. 그의 행동을 의거(義舉)라 부르는 이유다.

비록 안중근에게는 그를 군인으로 임명해 줄 조국은 없었지만, ‘세계시민’이라는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안중근의 행동은 충분히 군인다웠다. 정의의 회복과 평화유지는 인류가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이다. 안중근은 ‘양심’이라는 ‘인류의 조국’이 임명한 군인이었던 셈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역설한 세계시민주의와 안중근의 사상을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또한, 군인은 전문적인 전투 집단원이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경기 규칙에 따라 상대를 때리는 것은 ‘스포츠 행위’다. 그러나 링 밖에서 누군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이는 ‘폭행’일 뿐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군을 공격하고 포로를 대우하는 것은 정당한 전

안중근 의사가 지바 도시치에게 선물한 유묵 ▶

투 행위다. 반면, 상대를 잔인하게 고문하며 죽이는 것은 만행과 학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안중근은 ‘뺨속까지 군인’이었다. 1908년 6월,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들은 함경북도 경흥의 일본군 수비대를 급습했다. 그의 부대는 진지를 점령하고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안중근은 포로들을 모두 석방했다. 이에 반발하는 부대원들이 적지 않았다. 일본군들은 잡힌 의병들을 잔혹하게 고문하여 죽인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풀어준단 말인가. 안중근은 술렁이는 부대원들을 설득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따르면, 포로들을 죽이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우리는 포로수용소도 없다. 만약 그들과 똑같이 포로들을 학살한다면 우리가 침략자들과 다른 게 뭐란 말인가. 그의 태도는 이토를 저격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위급한 순간에도 무고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염려했다. 이런 안중근을 어떻게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나이가, 진정한 군인은 순명(順命)하는 삶을 산다. 순명이란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을 넘어, 죽어야 할 때 죽을 줄 아는 용기를 뜻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은 상고하지 않았다.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인 상황. 재판이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형을 한 달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담은 『동양평화론』을 완성 짓는 데는 이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임무’가 중요할 뿐, 살고 죽는 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안중근은 법정 변론에서 세월이 흐르면 일본인들이 ‘안중근의 날’을 만들어 기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많은 일본 관료들이 사형을 앞둔 안중근의 서에 글씨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지금은 ‘적’이지만, 조선이 독립한 후에는 그가 영웅이 되리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았던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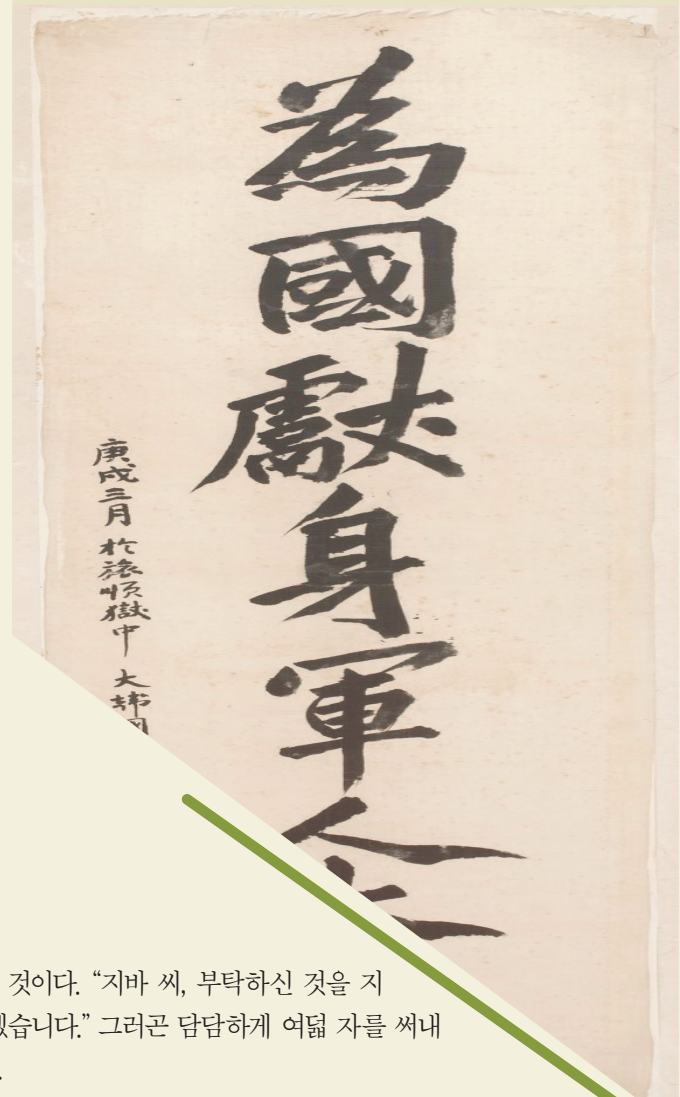
하지만 『동양평화론』을 쓰는 데 매달려 있던 안중근으로서는 그들의 존경어린 부탁을 일일이 들어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사형을 5분 앞둔 순간, 그를 담당하며 보살펴주었던 지바 도시치(千葉十七) 상등병의 부탁만큼은 들어주었다. 붓과 벼루를 가져와 그를 위해 문장을

남겨준 것이다. “지바 씨, 부탁하신 것을 지금 쓰겠습니다.” 그러곤 담담하게 여덟 자를 써 내려갔다.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뜻이다. 사형 직전임에도 감정의 떨림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담담하고 당당한 필체다. 지바는 이 글씨를 평생 간직했을 뿐더러, 죽을 때까지 집안에 작은 재단을 꾸려놓고 안중근을 위해 매일 참배를 했다.(이 유필은 지바의 후손이 기증하여 지금은 서울 남산 안중근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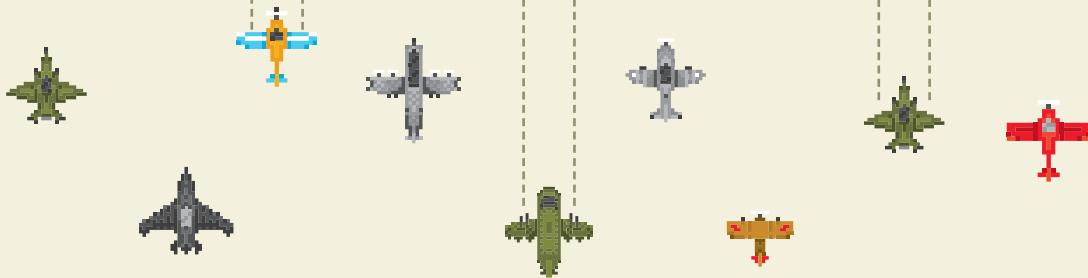
이 글씨는 ‘군인’ 안중근이 ‘군인’ 지바 도시치에게 준 선물이라 할 만하다. 당시 일본 헌병 근무 규정에는 “헌병은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아니더라도 상응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 언어, 동작, 복장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지바뿐 아니라, 당시 그를 접했던 대부분의 일본 군들은 안중근을 군인으로 진심으로 존경했다.

안중근은 ‘대한국민’으로, ‘대한의군 중장’으로 죽었다. 편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눈을 감은 그는 위대한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았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여덟 글자를 바라보며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볼 일이다. AF





에이스 컴뱃 7 Play the Fly



비행 액션 게임의 대명사, 에이스 컴뱃 시리즈

공중전을 다루는 게임 중 가장 실감나는 장르는 역시 비행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나 비행 시뮬레이션은 재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작과 개념이 어려워 일반적인 플레이어들은 공중전의 묘미를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평범한 플레이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비행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액션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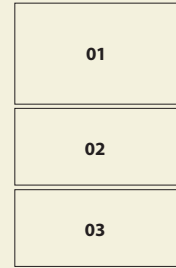
시뮬레이션과 달리 액션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들 게임은 전투의 편의성과 재미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한 대의 전투기가 30개의 사이드와인더를 들고 이륙하며(!), 조기경보기의 도움 없이도 초장거리 레이더 탐색을 한다. 플레이어는 복잡한 개념이나 역학을 떠나 오로지 공중전 그 자체의 매력에만 푹 빠져볼 수 있다.

비행액션 게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시리즈는 반다이남코사의 '에이스 컴뱃' 시리즈다. 1995년 플레이스테이션1을 통해 처음 발매된 이 시리즈의 초기작은 늘 탑 뷰나 사이드 뷰에서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던 공중전 묘사가 아니라 풀 3D의 3차원 비행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현실적인 기체, 가상의 세계관을 날다

'에이스 컴뱃' 시리즈는 게임성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면서도, 현실감을 버리지 않는다는 실존하는 기체들이 동시대 기술력 안에서 최대한 표현될 수 있는 부분까지 표현되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최신 항공기들이 총출동해서 펼치는 공중전은 전투기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멋진 전투기를 몰아볼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설득력 있는 재미로 다가왔고, '에이스 컴뱃'은 동시대 비행 액션 게임의 정석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편, 가상의 기체들은 게임에 보다 복합적인 매력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리즈 속 가상세계에는 거대 공중항모가 등장하는데, 6편에서 출현하는 거대 공중항모 아이가이온에서 전투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플레이어에게 경이로운 충격을 선사한다. 현실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게임이라는 상상의 공간에서 실존하는 기체들을 부러워 펼쳐 내는 상상력의 재미는 '에이스 컴뱃' 시리즈 인기의 원천이다.



- 01.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항공기들로 공중전을 펼친다는 점은 에이스 컴뱃 시리즈 최고의 매력이다.
- 02. 이번 작에는 VR이 도입되어서 콕핏 속 조종사의 시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03. 플레이어는 무인기를 쏘아내는 거대 항공기와의 맞서 싸워야 한다. 모두 격추하고 에이스가 되어 보자.

7편, VR과 무인기로 다시 날아오를까?

에이스 컴뱃 시리즈는 영성한 만듦새와 무성의한 서비스로 혹평 또한 적지 않게 받았다. 팬들은 새로운 시리즈로 명성을 회복해 주길 바라고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내년 1월에 발매되는 7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제는 PC로도 출시되어 콘솔 게임이 그리 흥하지 않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 컴뱃' 시리즈의 즐거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7편은 여러 데모를 통해 그동안 발전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그래픽과 성능의 대폭적인 향상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시도는 VR기술의 접목이다. VR은 공중전을 다루는 게임에서라면 엄청난 어드벤처지가 된다. 실제 조종석의 느낌을 고스란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화면이 대체로 조종석의 HUD로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예 전투기의 뒤에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3인칭 방식에 머무르는 반면, VR을 활용한 전투기 탑승은 이제 실제 파일럿의 시선을 느끼게 해준다.

'에이스 컴뱃' 7편의 데모 플레이 영상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바로는, 플레이어는 파일럿처럼 자신의 고개를 돌려 상하좌우 사방의 콕핏 바깥쪽을 육안으로 정찰할 수 있고, 시선을 내려 실제 작동하는 계기판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더욱 실재감을 고양시키는 VR기술의 접목과 함께 7편은 새로운 공중 무기로 무인기 개념을 끌어 온다. 거대 프로펠러 모기(母機)의 날개에서 쏟아지는 작고 재빠른 수백 대의 무인기와 맞서야 하는 주인공 일행의 도전은 짜릿한 공중전 체험이 될 것이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신작 출시가 거의 사라졌고, 3D 기반의 공중전 게임도 갈수록 점유율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간만에 등장한 비행액션 게임 신작은 여러모로 반가운 일이다. 최신 기술에 걸맞게 새로운 옷으로 맞춰 입고 나오는 '에이스 컴뱃'에 항공, 군사 마니아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과연 '에이스 컴뱃'은 새롭게 날아올 수 있을까? **AF**

「Play the Fly」는 12월호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Hollywood English

트루먼 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성경의 ‘시편(Psalm) 139편 1-4절’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 마크 저커버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시편 말씀에서 페이스북에 관한 영감을 얻었다고 술회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처음 펼친 게 ‘시편 139편’이었다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무언가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소리가 수백억 개의 서버 소리와 같고 천상의 반짝거림이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인다고 가정해보라.”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는 소재로 볼 때 ‘시대를 앞서간 작품’입니다. 영화는 ‘리얼리티 TV 쇼’를 다루는데요, 문제는 ‘리얼리티’를 내세웠건만 그 세계가 가짜 세상이라는 점. ‘true + man’이라는 언어유희인 주인공 ‘트루먼(Truman)’은 결국 자기가 꼭두각시임을 깨닫곤 진짜 세상을 찾아 떠납니다.

트루먼은 30년째 ‘시헤이븐 아일랜드(Seahaven Island)’에 삽니다. 낙원(heaven)과 안식처(haven)처럼 아름다운 이 섬 도시는 실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초대형 돔 스튜디오로 무려 221층 높이여서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큰 규모입니다.

스튜디오의 실력자는 ‘크리스토프(Christof)’ PD입니다. 그의 이름이 암시하듯 그는 ‘그리스도(Christ)’라도 되는 양 ‘신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God)’를 외치는 부류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태어난 아기 트루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30년째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는 설계자입니다.





거대한 방송 스튜디오 안엔 수천 대의 몰래 카메라가 있어서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촬영합니다. ‘시혜 이븐 아일랜드’의 시민들, 즉 스튜디오 안 사람들은 다 ‘제작진과 짜고 치는’ 연기자입니다. 트루먼만 그걸 모릅니다. 한 연기자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실이고 진짜예요.

방송 내용에 가짜나 거짓은 하나도 없어요.

(It's all true. It's all real. Nothing on this show is fake.)”

시청자들은 그런 말에 훌쩍 넘어가 방송을 즐깁니다.

트루먼은 대학생 때 실비아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지를 여행하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납치된 겁니다. 배후에는 PD가 있습니다. 트루먼이 피지에 가려면 섬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한 겁니다. 그녀를 잊지 못하는 트루먼은 다짐합니다. 언젠가 꼭 실비아를 만나러 피지에 가겠다고….

한편 트루먼에게 수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행 중에 켜놓은 라디오에서 트루먼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것 같은 무선 교신 소리가 뻑뻑뻑뻑 새나옵니다. ‘모든 게 가짜였다(Nothing was real)’는 걸 트루먼이 자각하는 일련의 과정은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트루먼은 보트로 섬을 빠져나가고 싶지만 선뜻 용기를 못 냅니다. 악몽이 있어서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큰 바다에 나갔다가 악천후로 인해 배가 뒤집혀 혼자만 목숨을 건진 악몽입니다. 그게 PD의 연출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된 트루먼은 섬을 절대 못 떠날 거라고 확신하는 PD의 허를 찌릅니다.

트루먼은 CCTV를 숙여 가며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가 탄 배 이름은 ‘산타 마리아’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탄 기함(旗艦) 이름이지요. 트루먼은 이제 새로운 세상, 진짜 세상을 향해 떠나는 탐험가와 선구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PD는 트루먼의 탈출을 막으려고 옛날처럼 기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천후를 만듭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트루먼이 PD를 향해 경고합니다.

“내 의지를 꺾고 싶나? 그럼 날 죽여야 할 거야.

(Is that the best you can do? You're gonna have to kill me.)”

트루먼이 항해할 때 감독이 보여주는 닳의 숫자 ‘139’는 시편 139편을 뜻합니다. 악천후가 멈춘 후 트루먼도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과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요.

저는 특히 시편 139편의 9-10절에 주목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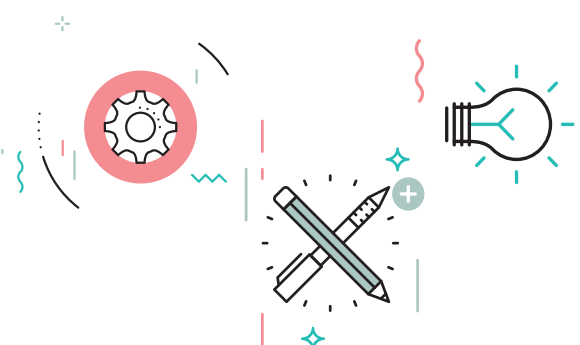
(If I ris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과연 트루먼은 바다 끝에 가서 그곳 너머의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만나다면 거긴 의심할 여지없이 진짜 세상일까요.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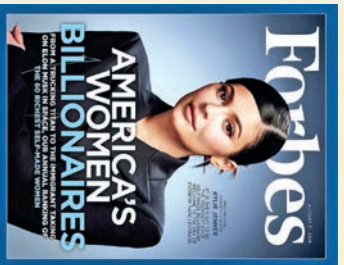
트렌드가 보인다

‘악’ 소리 나는 인스타그램 수익

스타들은 과연 ‘인스타그램’으로 얼마나 돈을 벌까요?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인스타그램 유저 20여 명당 한 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상 이상의 금액을 벌고 있습니다. ‘협찬’ 광고는 무려 매년 34%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 #소통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은근슬쩍 끼워 넣은 협찬 광고가 타임라인으로 쏟아지고 있죠.



인스타그램 포스트의 예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Hopper HQ’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어 수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2018년, 스타의 인스타그램 광고 수입 랭킹을 추산했습니다(예측가이나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죠). 과연 어떤 스타들이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작년에도 소개했던 이 광고 수익 랭킹은 올해 뜨거운 쟁탈전을 거쳐 일부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순위권에 든 스타들은 1년 새 포스팅 당 약 2~5억 원의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나 소셜 미디어 시장의 수익성은 나날이 기대해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브랜드들은 패션 매거진이나 TV CF의 광고 마케팅비를 스타의 인스타그램으로 투자하는 중입니다. 2018년 현재, 인스타그램의 월 사용자가 약 9억 명이 넘고, 앞으로 사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부호도 늘어나겠죠!



1위. 카일리 제너 (Kylie Jenner)

유명 셀러브리티인 킴 카다시안의 이복동생인 카일리 제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1억 1천만 명.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인스타그램으로 런칭한 메이크업 브랜드



2위. 셀레나 고메즈 (Selena Gomez)

드 카일리 코스메틱(Kylie Cosmetic)은 무려 약 1조 8백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포브스>가 선정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나당 약 11억 원의 협찬 광고비를 벌어들이며 수입 랭킹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작년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4위였는데, 7억 원 가까이 끌어올렸네요.

작년에 랭킹 1위였던 셀레나 고메즈가 카일리 제너에게 수익 순위에서 밀려 났군요! 팔로워는 카일리 제너보다 많은 1억 3천 8백만 명. 포스트 하나 당 협찬 수익은 약 9억 원. 작년에 비해 무려 3억 원이나 몸값이 올랐지만 2위에 그쳤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아무런 브랜드나 마구잡이로 협찬을 받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패셔니스타들 사이에 불쑥 랭크에 오른 스포츠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협찬 수입을 벌었습니다. 1억 3천 3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호날두는 포스트 하나당 약 8억 4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작년은 회당 4억 6천만 원이었는데 약 두 배 이상 몸값을 올렸습니다. 특히 2016년 1년간, 호날두가 나이키 포스트를 약 300여 개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나이키는 5천 3백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1조 2억 원 대의 '종신' 광고를 체결합니다. 게다가 호날두가 올렸던 위의 사진 단 한 장으로 인해 나이키는 약 70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습니다. 호날두는 직접 만든 패션 브랜드 'CR7'은 물론, 축구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리스본의 호텔 'Pestana CR7 Hotel'도 꾸준히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4위. 김 카다시안(Kim Kardashian)

김 카다시안은 1억 1천 3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습니다. 김은 주 수입의 30% 이상이 인스타그램인 스타죠! 그녀는 포스트 한 장당 8억 4백만 원의 광고료를 벌어들입니다. 작년 5억 6천만 원이었던 광고료에 비해 3억 여 원이나 몸값이 올랐군요. 그러나 순위는 2계단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향수 브랜드 'KKW 향수'를 론칭한 첫 날도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통해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파워 셀러임을 과시했습니다.



5위. 비욘세(Beyoncé Knowles)

1억 1천 5백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비욘세.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올린 이 사진은 올린 지 하루 만에 좋아요 7백만 개를 돌파했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으로 기록됐습니다(현재는 1천 1백만 개의 좋아요로 2위에 랭크 중). 그녀는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몸값이 늘면서 순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비는 포스팅 당 약 8억 원이라고 하네요. 음반활동을 시작한 덕분이겠죠.

불과 5년 전만해도 대중들은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이 이정도로 거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땐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비난에 시달렸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대중들이 선망하는 스타와 단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 외에, 24시간만 공유되는 스토리, 실시간 생중계 라이브 기능이 매년 더해지면서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타들의 간접 광고 포스팅이 '돈'이 될 수밖에 없죠! 인스타그램은 현재 사진에 제품 구매하러 가기 링크 기능으로 광고 플랫폼까지 형성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수할 당시의 가치는 5조 원, 현재는 10배가 넘으며, 사용자도 3천만 명에서 8억 명, 광고주도 200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 외에 영향력을 지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신흥 직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가 높을수록 포스팅 당 광고 수익이 높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가짜 팔로워'를 사들이고, 포스팅에 '좋아요'도 조작을 통해 늘리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주들 역시, 스타의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이 '허수' 분석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상만큼 재빠르게 변하는 곳이 없죠? 올해 순위가 뒤바뀐 스타들처럼, 내년에도 인스타그램엔 많은 기능과 변화들로 시끌벅적할 것 같네요! AF



JAZZ

즉흥연주:

모든 연주자들의 로망,
재즈 연주자들의 특권



흔히들 재즈는 '자유'의 음악이라고 말한다. 연주자들이 즉흥연주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작곡가가 미리 써 놓은 악보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주하는 것이 재즈의 표현법이다.

물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즈만 즉흥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물놀이나 산조 모두 즉흥으로 연주된다. 전 세계의 민속음악으로 시야를 넓히면 아마도 대부분이 악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즉흥으로 연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악보가 있기 이전에도 음악은 존재했다. 단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 음악은 구술과 도제수업을 통해 전승되고 기억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모든 한 음, 한 음을 악보에 의존해서 악보를 보고(혹은 외워서) 연주하는 유럽의 고전음악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연주되는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근대 유럽에서 탄생한 악보라는 체계는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음악을 기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의 모든 음악인들은 서양 악보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국악도 서양악보 체계로 기록된다. 가요를 연주하거나

재즈를 연주하는 음악인들도 악보를 보는 것에서는 예외가 없다.

악보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이다.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합주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이 완성된 연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그리고 녹음이 없던 20세기 이전에는 어떤 작품의 모습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재즈 연주자들은 악보가 탄생한 이후에도, 악보를 읽는 훈련까지 모두 습득하고서도 즉흥연주를 하려고 한다. 왜 그런 것일까?

모든 음악가들은 즉흥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19세기 작곡가들도 즉흥연주에 의해 음악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만약 당시에 녹음기술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작품을 의뢰한 귀족들이 굳이 악보를 원치 않았다면, 그들 역시도 악보가 없는 즉흥연주에 의한 작품들을 다수 남겼을 것이다. 클래식 음악에 '즉흥곡', '환상곡'이란 제목이 붙은 작품들은 모두 그런 곡들로, 당시로서는 그 즉흥연주를 악보 외에는 기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악보에 남게 된 것





빌리 조엘의 <당신 모습 그대로 Just the Way You Are>에서 완벽한 즉흥연주를 넣어 준 명 색소폰 연주자 필 우즈



히트곡 <당신 모습 그대로>를 담은 1977년 앨범 [이방인 The Stranger]

일 뿐이다. 수많은 협주곡에서 장대한 1악장 말미에 등장하는 '카덴차' 역시 즉흥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악보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 음악적인 측면의 이야기이지 실제로 즉흥연주는 대중에게 친숙한 표현법은 아니다. 즉흥연주가 많이 사용될수록 사람들은 그 곡을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음악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20세기에 와서 음악가들은 즉흥연주를 익히는 험난한 길을 점차 외면하게 되었다. 그 길을 고집한 것은 오로지 재즈 연주자들뿐이었다.

재즈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는 다른 음악 안에서도 종종 쓰인다. 대중적인 히트곡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빈 구석이 생겼을 때 재즈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는 그 음악적 허점을 완벽하게 메워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 중에 미국의 가수 빌리 조엘이 1977년에 만든 <당신의 모습 그대로 Just The Way You Are>란 곡이 있다. 이 곡을 담은 싱글 레코드는 단번에 50만 장이 팔렸으며 1979년 그래미 상에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그런데 이 곡을 작곡, 작사한 빌리 조엘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마치고는 그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두가 좋아할만한 따뜻한 사랑의 노래였지만 그는 음악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녹음을 일단 마친 후 답답한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복도로 나왔는데 그때 옆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던 재즈 색소폰 연주자 필 우즈와 우연히 마주쳤다. 이때 빌리는 필의 즉흥연주를 곡의 중간과 말미에 넣어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필 우즈는 악보를 한 번 보고, 녹음된 곡을 한 번 듣고는 색소폰 즉흥연주를 단번에 넣어 주었다.

이 곡은 대중적인 히트곡이 된 것은 물론이고 필 우즈의 즉흥연주를 통해 음악적으로 완벽한 걸작이 되었다. 필의 즉흥연주가 빌리 조엘의 사랑의 마음을 살아 숨 쉬는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다듬은 작곡된, 편곡된 선율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표현은 결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즉흥연주는 재즈 연주자들의 특권처럼 남아 음악계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AF}

「재즈가 돌린다」는 12월호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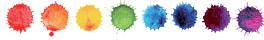


글
중위(진) 윤기준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생각하는 그림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을까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입니다. 상관관계란 ‘일정한 수치로 계산되어 두 대상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자존감과 성적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정적 상관관계’와 ‘부적 상관관계’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자존감 높은 대학생이 성적이 높다.’는 결론이, 후자의 경우 ‘자존감 낮은 대학생이 성적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자존감이 성적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적이 높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은 것인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성적도 높은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상관관계는 이처럼 두 대상의 관련성만 보여줄 뿐,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명확히 다르지만 이를 혼용하는 일반인이나 초보 연구자가 많다고 합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사이의 혼용은 결과적으로 실험 또는 조사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아동의 폭력성과 TV 폭력물 시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TV 폭력물 시청 빈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폭력에 대한 자극으로 폭력성이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기 보다는 제3의 요인인 '부모의 무관심'이 아동의 TV 폭력물 시청과 폭력성 두 가지 요인 모두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높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마치 폭력성과 폭력물 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듯 보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에는 다시 수많은 원인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원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사이의 오류에 빠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까마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사회. 혹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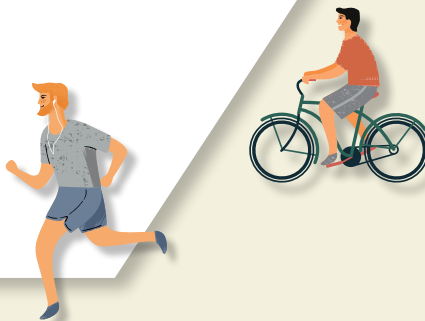




글
유현정
(주비타민하우스
광고홍보팀장)

공군 IN Fitness

당신이 잠든 사이에 - 건강한 잠에 대하여



우리는 일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채운다. 인간은 자는 동안 지친 몸을 회복한다.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면 우리 몸의 리듬은 깨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을 바란다면, 적당한 잠은 필수다. 오늘은 <내 몸 안의 잠의 원리, 수면 의학>에 소개된 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렘수면과 논렘수면

렘(REM)이라는 말은 Rapid Eye Movement의 줄임말이다. 말 그대로 '급속한 안구 운동'을 뜻하고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수면을 우리는 렘수면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몸이 이완되어 근육 활동이 저하되고,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조절하는 자율 신경계가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렘수면은 몸이 휴식하는 신체의 수면 상태라면, 논렘수면은 뇌가 거의 활동하지 않아 뇌의 수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렘수면과 논렘수면은 보통 60~120분 주기로 하루에 3~5회 번갈아 나타난다.

나이에 따른 수면의 질

수면은 그 깊이와 뇌파의 종류에 따라 3~4가지로 나뉜다. 알파파는 꾸벅꾸벅 조는 렘수면 상태(1단계)이며, 세타파는 잠이 알게 든 논렘수면 상태(2단계), 깊이 잠든 논렘수면의 경우는 델타파(3~4단계)가 측정된다. 델타파 상태의 수면을 서파수면이라고 한다. 건강한 이들은 취침 후 3시간 안에 서파수면에 진입하고, 서파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잠을 통한 진정한 휴식이 이뤄진다. 20대 청년의 경우 논렘수면에 해당하는 깊은 잠(서파수면)이 수면 전반부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40대 수면의 경우 서파수면이 짧아지고, 80대의 수면에서는 깊은 잠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어린이나 젊은이는 옆에서 흔들려 깨워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지만, 나이가 들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잠에서 깨는데, 이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건강한 잠을 위한 조언

- ① 수면의 양에 얽매이지 말자
보통 적정 수면시간은 6~8시간을 권장한다. 하지만 적정 수면시간은 개인차가 크므로,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면 꼭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낀다면 충분하다.
- ② 적당한 운동은 꿀잠의 비결
낮의 신체 활동은 각성 수준을 상승시키고 야간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하지만 과한 운동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트리므로 유의하자.
- ③ 빛을 잘 활용하자
빛은 수면-각성 리듬에 영향을 끼친다. 고령자가 낮에 햇볕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된다. 반대로 늦은 밤에 밝은 빛을 쬐면 멜라토닌이 억제되거나, 수면시간이 뒤로 밀린다.
- ④ 수면의 질을 개선하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로 잠의 질이 떨어졌을 수 있다. 잠든 시간의 문제를 관찰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자. AF

참고 문헌

우치다 스나오, 황소연 역, 『내 몸 안의 잠의 원리, 수면 의학』, 전나무숲, 2018

「Fitness」는 12월호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
12
4 8 6

POST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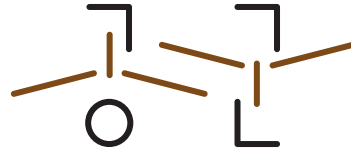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백일장 일흔세 번째 주제

별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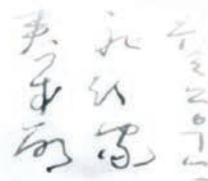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흑백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의 기억속에
공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군박물관에서는 2019년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기억, 공군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 메모, 편지, 수첩, 일기, 일지, 수양록, 문서 등
- 신문, 도서, 포스터, 화보 등
- 문구, 교과서, 시험지, 노트, 성적표, 상장, 음반 등
- 설계도, 공구, TO, 장비 등
- 항공기도입, 부대창설관련 기념품, 그림, 포스터 등
- 공군생활자료, 급여명세서, 임관반지, 스포츠용품 등
- 헬멧, 섀글라스, 마후라, 마크, 전투복, 조종복, 정비복 등
- 기타 알리고 싶은 공군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료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우)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전화 : (043)290-6071~6075 팩스 : (043)293-6185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8
12
4 8 6

〈‘독자 엽서’ 코너가 새로워집니다!〉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자유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월간 「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혹은 월간 「공군」의 지면을 통해서 전우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우에게 전하는 감사와 칭찬, 속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연은 지면에 게재해드리며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드립니다.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

정답 1. ③ 연 날리기 2. ② 라이트 윙

당첨자 강원도 원주시 서인수 / 대구시 동구 권재현 / 서울시 구로구 장건식 / 강원도 동해시 장우익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LETTERS TO EDITOR

좋은 의견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서인수 (강원도 원주시)

월간 『공군』은 '기대림'이다. 새로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만화 그리는 조종사> 이성민 소령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항공기 조종만으로도 특별해 보이는데, 만화까지 잘 그린다니 부럽습니다.

편집실

서인수 독자님, 월간 『공군』을 기다려주시는 만큼 좋은 기사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성민 소령은 말 그대로 조종도 잘하고 만화도 잘 그리는 '능력자'인데요. 여러 장점 중에는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단연 빛났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의 모습! 월간 『공군』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재현 (대구시 동구)

월간 『공군』은 '선물'이다. 매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로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 Space Challenge 예선 당시 블랙이글스를 보고 더욱 알고 싶었는데 이번 호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실

권재현 독자님, 월간 『공군』 때문에 행복하셨다니 저희도 행복합니다. 블랙이글스 취재 기사는 많은 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어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갈증을 해소해주는 월간 『공군』이 되겠습니다.



장건식 (서울시 구로구)

월간 『공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다.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공군의 기초를 닦으신 최용덕 장군님의 이야기가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편집실

장건식 독자님, 월간 『공군』은 앞으로도 역사를 소중히 하고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님은 모든 공군인들이 귀감으로 삼기에 충분한 분이시지요. 내년에는 창군 70주년을 맞아 더 다양한 공군사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장우익 (강원도 동해시)

월간 『공군』은 '마라톤'이다. 손기정 선수와 남승룡 선수의 눈물겨운 레거를 읽고 나니, 1등만 기억하는 시대에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팀워크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졌습니다.

편집실

장우익 독자님, "내가 손기정이 부러운 것은 금메달이 아닙니다."라는 말에 담긴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숨어있는 팀워크 영웅들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월간 『공군』이 발로 뛰며 숨은 영웅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